

여수, 2년 연속 관광객 1천만명 시대 연다

1월 64만명 방문 ... 전년 동기보다 46.8% 증가 오동도 21만·향일암 5만명 ... 체류형 관광 급증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해 2년 연속 1000만명 관광시대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여수 오동도·향일암·금오도 등 지역 관광지를 다녀간 관광객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8%가 늘어난 6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관광지 별로 살펴보면 오동도 21만3000명을 비롯해 박람회장 12만명, 아쿠아플라넷 5만7000명, 향일암 4만6000명, 돌산공원 3만4000명, 해양수산과학관과 진남관 각각 2만3000명, 금오도 1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관광지인 오동도는 만개한 동백꽃을 보려는 상춘객들의 발길로 북적대고 있다. 올해 관광객으로 새롭게 등록된 돌산읍 송사마을 체험장은 도심속 생태공원으로 주목을 받으며 방문객이 지난해 1월 1500여명에서 올해 8400여명으로 증가했다. 가막만의 탁 트인 풍광을 바라보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경도골프장 내장객도 지난해 1월 1355명에서 올해 5044명으로 증가했다.

여수 밤바다와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는 유람선 관광은 1700여명에서 9700여명으로, '비렁길'로 유명한 금오도 방문객은 1만1600여명에서 1만6800여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여수시는 이처럼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도로·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라 당일치기 형태의 관광객도 지난해 1월 1355명에서 올해 5044명으로 증가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다도해 유람선과 섬 관광, 아쿠아플라넷이 있는 세계박람회장, 해양 레일바이크 등 다룬 도시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되고, 여수 세계 박람회장과 순천정원 박람회가 재개장하면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세계꽃미축제 5월23일 개막

따뜻한 겨울날씨 탓 당초보다 2주 앞당겨

올해 곡성 세계 꽃미축제 개최 시기가 따뜻한 겨울기후로 인해 2주일 가량 앞당겨진다. 곡성군은 당초 6월 7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던 '제4회 곡성 세계 꽃미축제'를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열기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눈이 적게 내리는 온화한 겨울기후로 인해 지난해보다 장미 개화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축제 개최 시기를 5월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항기, 사랑,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꽃미축제는 세계 각

국의 명품 장미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곡면 섬진강 기차마을 내 '1004장미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K-POP 가수 공연을 비롯해 장미키플 선반, 천사 사랑빛 거리, 세계 바텐더 대회, 사랑하트 달기 등 80여개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부터 장미 생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축제 프로그램을 관광객 편의 공간 확보와 참여 행사 중심으로 구성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아침 10분 투자로 몸 튼튼 마음 튼튼 순천보건소 건강체조

"매일 아침 10분 투자로 몸 튼튼! 마음 튼튼!" 순천시 보건소 직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매일아침 근무 시작전 10분간의 건강체조를 활기찬 하루를 열고 있다. "여기저기 수시고 빠르하 시조, 온몸을 상쾌하게 튼튼하게! 썩는 건강 에너지" 라는 멘트와 함께 시작되는 건강체조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신체 활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직장인이 건강체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예정일기자 yjy@



“안전한 여수수산물 드세요”

서울 시민들이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14 어식백세(魚食百歲) 국민건강 캠페인' 행사장에 마련된 여수수산물 부스를 찾아 견어물을 구매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월말 발생한 우시산호 총돌 유행으로 사고로 소비가 급감한 여수 수산물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 제공>



‘여수항일운동 기념탑’ 옹천 하나로공원에 건립

여수시가 옹천하나로공원에 '항일운동 기념탑'을 건립한다. 여수시는 3월 1일 옹천 하나로공원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각계각층 대표,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5주년 3·1절 기념식과 함께 '여수 항일운동 기념탑' 기공식을 갖는다. 지난해 1월 공모를 통해 '불멸의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제작에 착수한 기념탑은 부지 1035㎡에 17m 높이로 오는 4월말 완공할 예정이다. 탑의 형상은 승리(Victory)의 '영문 V'자, 3·1 독립운동의 '만세', 여수반도 지형의 '나비' 등 세가지 상징 의미를 담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북

단신

고창, 미래 희망 100년 비전 선포

군민·출향민 참석 내일 '創郡 100년' 기념행사

고창군이 창군(創郡) 100년을 맞았다. 고창군은 28일 오후 3시 문화의 전당에서 군민과 출향인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난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일구기 위한 미래 희망 고창의 100년을 설계한다. 고창지역은 삼한시대에는 마한 모로비리국에, 삼국시대에는 백제 모량부리현에 속했다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고창현(縣)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조선 고종 32년(1895년) 갑오개혁 때 현이 군으로 승격됐고, 1914년 3월 1일 부·군 통·폐합령에 따라 고창군(8개면)·무장군(16개면)·홍덕군(9개면)이 고창군으로 통합됐다. 100주년 행사는 일렉트로의 전자 바이올린 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과 기념사, 축사에 이어 미래 100년에 대한 고창 비전을 선포한다. 또 식후 행사로는 조성모·박강성·유성은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희망 콘서트가 펼쳐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비록 일제강점기라는 통탄의 역사를 겪었지만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고창의 미래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군민 모두가 역할을 다할 때 오늘날보다 내일이 더 희망 고창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동학농민혁명 기폭제 '고부봉기' 기념제 연다

내달 5일 정읍서 개최

올해로 120주년을 맞은 동학 농민혁명의 기폭제가 된 고부봉기를 기리는 행사가 3월 5일 정읍에서 개최된다. 고부봉기는 1894년 음력 1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 교도와 농민이 들고 일어나 고부관아를 점령한 역사적 사건이다. 기념제에서는 당시 농민들이 이평 말뚝장터에 집결한 뒤 전봉준 장군과 함께 진격해 고부관아를 점령하는 장면을 재연한다. 이평 만민들로 구성된 배틀 농악단의 풍물놀이와 전통무예인 태권 시범 등의 문화행사도 마련된다. 말뚝장터는 농민들의 첫 집결지이다. 동학 지도자인 전봉준은 이곳에서 격문을 발표한 뒤 농민들을 이끌고 관아로 향한다. 기념제는 당초 고부 봉기일인 양력 2월15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류 인플루엔자(AI) 때문에 늦춰졌다. 김생기 시장은 "고부 봉기는 동학혁명이 시작된 날로, 올해는 동학혁명 2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욱 뜻이 깊다"며 "기념제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여성친화 도시공원' 재정비

지난해 '여성 친화도시'에 선정된 남원시가 올해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을 펼친다. 시는 우선 안정성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여성친화 설계와 디자인을 도입한 '여성친화적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3월에는 여성정책 최일선에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고, 각 부서별 핵심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과 공사발주 시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책인이나 설계단계부터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시민 참여 방안도 마련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복분자 가지치기 분주

정읍시 정유면 송배마을 들녘에서 농민들이 복분자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복분자는 봄을 앞두고 새 순이 돋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연철뉴스

순창 삼채, 항 당뇨 효과 입증

발효미생물 사업단

'산도클러스터 평가보고회 및 순창 삼채 발전 포럼'에서 "삼채 부유분 열수 추출물과 삼채 가공제품을 사용한 당뇨 쥐가 체중 및 인슐린 변화에서 유의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순창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사업단은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전주, 한옥마을 창작 예술공간 입주작가 공모

전주시는 3월 6일까지 '한옥마을 창작 예술공간' 입주작가를 공모한다. 전주시는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예술공간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입주작가의 창작활동과 연구활동, 전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주작가를 선정, 거주 및 작업공간을 지원하게 된다. 작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창작예술공간 I'는 시각예술 분야로 모집분야를 확대했다. 거주공간만으로 이루어진 '창작예술 공간 II'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작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063-281-2225) /전주=부인=김철수기자 knews@

산불예방 내장산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해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 전면통제되는 구간은 탐방객 출입이 비교적 적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까치봉 능선삼거리~순창고개 ▲장성재~삼왕봉 ▲구암사~백학봉 능선 등이다. 산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개 탐방로는 평소와 같이 개방한다. 유기봉 탐방시설 과정은 "출입통제 구역내 무단 출입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월정리에 블루베리 분양농장 조성

순창군이 구미면 월정리 소득개발 시범포에 블루베리 분양농장을 조성한다. 군은 3월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1인당 10여주의 블루베리를 분양해 직접 관리하고 수확해 가는 분양농장 규모는 50~70호 정도의 분

고창군보건소, 심뇌혈관 예방 '고당이 교실' 운영

고창군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매주 금요일 '고당이(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교실'을 운영한다. 군 보건소는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 약물치료 등의 중요성 강연을 비롯해 운동 시연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 질환은 국민의 단일질환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당이 교실"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063-560-8727) /고창=윤창영기자 cy0370@